

○ 외환리포트

전일동향

전 거래일대비 6.10원 상승한 1,237.00원에 마감

22일 달러-원 환율은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과 관련한 미중갈등에 전 거래일 대비 6.10원 상승한 1,237.00원에 마감하였다.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-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,234.00원에 개장하였다. 개장이후 환율은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논란에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며 상승세를 보였다. 그러나 1,240원대에서 상단이 제한되었으며 장 막바지 소폭 하락하여 1,237.0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. 시장 평균환율은 1,236.20원에 고시되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-원 재정환율은 1,151.35원 이다.

전일 달러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
1234.00	1238.40	1233.70	1237.00	1236.20

전일 엔화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
1141.22	1152.55	1141.22	1150.76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0.07	-0.94	-2.91	-7.7
결제환율(수입)	0.1	0.47	-0.14	-2.83

*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.
* 해당월 말일(영업일)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
*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금일 전망

홍콩 국보법을 둘러싼 미중갈등 ... 1,240원 중심 등락 예상

금일 달러원 환율은 홍콩 국보법을 둘러싼 미중갈등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0.1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237.00원) 대비 3.55원 상승한 1,240.7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. 미중갈등의 양상이 점차 극에 달하고 있다. 미국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제재와 관련해 관세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.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였으며,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격화될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. 이상의 요인은 코로나 중국책임론 및 무역갈등에 이은 위험요인으로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, 코로나19 사태에도 안정세를 보이던 위안화를 약세로 전환시키며 달러원 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. 다만, 당국의 경계 및 백신개발 기대는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. 미 당국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에 대해 “희망적”이라고 발언하며 연말까지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어 놓았으며, 시장이 이와같은 낙관적 메시지에 주목하는 경우 환율의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237.25 ~ 1245.00 원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4748.99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5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24465.16, -8.96p(-0.04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70.69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263 억원

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